

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화답송 [다해]

시편 122(121), 1- 2. 4- 5



(후렴) 기 뻘 - 하 며 주 님 의 집 으 로 가 리 라.



1. "주님의 집에 가 자!" 할 때 나는 몹시 기 뻘 노 라.

2. 그리로 지파들이 올 라 가 네. 주님의 지파들이 올 라 가 네.



예루살렘아, 네 성 문 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 노 라.

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그곳에 심판의 왕좌,
주님의 이름을 찬 양 하 네.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 여 있 네.